



광주 FC의 임선영(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23일 광양공설운동장 축구장에서 진행된 아주대와 연습경기에서 상대 수비수와 몸싸움을 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첫 실전 광주 FC, 스피드·전술 이해도 “합격”

광양에서 전훈...조선이공대·아주대와 연습경기

남 감독대행 “선수들 움직임 만족...세밀함은 보완”

광주 FC가 실전연습을 갖고 본격적인 시즌 준비에 들어갔다.

광양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는 광주 FC가 23일 조선이공대, 아주대와 연습경기를 치렀다.

광주는 1차 체력 훈련을 끝낸 뒤 지난 16일 광양으로 훈련지를 옮겨 기술훈련을 하고 있다. 이번 경기는 광주의 시즌 첫 연습경기였다.

남기일 감독대행에게는 선수들의 면면을 확인하고 큰 틀을 그려볼 수 있는 평가의 시간이었고, 선수들에게는 진짜 경쟁이 시작된 출발의 시간이었다.

오전 조선이공대와의 경기를 통해 몸을 쏙 뽐낸 선수들은 오후 아주대를 상대로 본격적인 싸움에 들어갔다.

아주대와 경기에서는 남 감독대행이 머릿속에 그려놓은 주축 멤버인 김호남 임선영 김민수 이완 최성환 송한복 여름 백민철 안종훈 전준형 이종민이 처음 손발을 맞췄다.

경기 시작과 함께 끝을 허용한 광주는 0-2로 뒤지던 후반, 스피드로 무장한 김민수의 연속골로 2-2 무승부를 기록했다. 결과는 무승부지만 남 감독대행의 평가는 ‘만족’이었다. 오히려 선수들에게 강조한 것은 ‘천천히’였다.

경기가 끝난 후 “한꺼번에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 차근차근 풀어가야 한다. 지금은 천천히 가자”고 선수들에게 주문한 남 감독대행은 “경기에 만족한다. 세밀하게 컨트롤 해가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선수들의 움직임이 만족스럽다”고 첫 연습경기를 평가했다.

지금은 완벽한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문제점을 발견하는 시간이라는 것이 남 감독대행의 설명이다.

남 감독대행은 “선수들이 훈련을 너무 열심히 해서 걱정이 될 정도다”며 오버페이스를 경계한 뒤 “지금은 문제점이 많이 나와야 한다. 그래야 문제점에 대한 보완과 준비를 할 수 있다. 오늘 첫 경기를 했는데 잘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체력과 전술의 이해도는 남 감독대행의 고개를 끄덕이게 한 결과다.

광주는 올 시즌 대대적인 팀리빌딩을 진행하면서 경험 많은 베테랑 선수들로 새 팀을 꾸렸다. 패기 대신 경험을 선택했지만 그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었다. 연령대가 높아진 만큼 체력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끊임없이 상대진영을 치고 오르며 분주하게 그라운드를 누빈 선수들의 걸음은 한결같았다. 무엇보다 실전을 통해 높은 전술의 이해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남 감독대행은 “어제 잠깐 전술적인 부분에 대한 훈련을 했는데 경험과 개인 기술이 있는 선수들이라서 바로 이를 풀어내는 모습이였다. 전술에 대한 이해가 높다. (경기 도중)이름만 불러도 선수들이 알았다고 표현을 할 정도로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했고 어떻게 해야하는 지 알고 있다”고 만족감을 보였다.

앞으로의 과제는 패스를 통한 세밀함 더하기다. 처음 호흡을 맞춘 만큼 연습경기에서의 전체적인 움직임은 거칠었다. 세밀하게 오밀조밀 움직이는 모습은 부족했다. 하지만 연습과 시간을 통해 완성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28일까지 광양캠프를 이어가는 광주는 앞으로 두 차례 더 연습경기를 갖고 호흡을 맞춘다. ‘빨리 빨리’가 아니라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가 광양 캠프의 목표가 될 전망이다.

/광양=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자꾸 기대되네

기성용, 내일 FA컵 출격

토너먼트 경기에서 연이어 강한 모습을 보인 한국 축구대표팀 중앙 미드필더 기성용(25·선덜랜드)이 이번 주말 잉글랜드 축구협회(FA)컵에 출격한다.

기성용은 25일(이하 한국시간) 자정 영국 선덜랜드의 스타디움 오브 라이트에서 커더민스터와의 FA컵 4라운드(32강) 홈경기에 나선다.

23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와의 잉글랜드 캐피털원컵 4강 원정 2차전에서 해결사로 활약한 기성용에게 기대가 쏠리는 경기다.

기성용은 맨유전에서 120분을 소화하며 1도움을 올리고 승부차기에서도 결정적인 골을 넣어 최고 해결사로 우뚝 섰다.

지난 18일 사우샘프턴과의 22라운드 홈경기에서는 계속된 선발 출장에 따른 체력 저하로 다소 주춤했다.

하지만 최근 프리미어리그 데뷔골과 연속 경기 득점을 올리는 등 발끝이 달아올라 있다.

더욱이 그는 지난달 18일 첼시와의 캐피털원컵 8강전에서 결승골을 터뜨리는 등 단기전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왔다.

또 이번 FA컵 상대인 커더민스터는 5부 리그인 잉글리시 콘퍼런스에 속한 팀이라 이번이 없는 한 기성용의 활약에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이밖에도 김보경(25·카디프시티)과 이청용(26·볼턴)의 ‘코리아 Derby’가 성사될지도 관심사다. 카디프시티와 볼턴은 25일 자정 볼턴의 리복 스타디움에서 FA컵 4라운드 경기를 벌인다.

최전방 공격수 박주영(29)이 속한 아스널은 25일 오전 4시45분 코벤트리시티와 FA컵 4라운드를 치른다.

결혼과 자선 축구 준비로 대표팀 복귀가 불투명해진 박지성(33·에인트호번)은 26일 오전 3시45분 AZ 알카르와 네덜란드 에레디비지에 홈 경기를 치른다. 박지성이 팀 순위를 끌어올리고 여전히 홍명보 대표팀 감독의 구애를 받은 만한 기량을 보여줄지가 관심사다.

/연합뉴스



홍명보의 선택은 누구

“3차례 평가전서 월드컵 엔트리 20% 퍼즐 맞추길”

예상대로 세 차례 평가전을 통해 브라질 월드컵 엔트리의 윤곽이 드러나게 됐다.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은 23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LA 콜리세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세 차례 평가전에는 본선 경쟁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26일 코스타리카(FIFA 랭킹 32위), 30일 멕시코(21위), 2월2일 미국(14위)과의 평가

전을 통해 월드컵 본선을 앞둔 담금질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6월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실전 테스트 기회는 많지 않다. 이번 미국에서 갖는 세 차례 평가전 외에는 3월 6일 그리스전 정도가 확정돼 있고 그 이후 열리는 평가전은 본선 엔트리가 정해진 뒤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

홍 감독이 지난해 말 인터뷰에서 “최종 엔트리의

80% 정도 정해졌다”고 밝힌 만큼 국내와 위주로 꾸려진 이번 브라질, 미국 전지훈련과 세 차례 평가전을 통해 나머지 20%의 주인공이 가려지는 셈이다.

홍 감독은 이날 “100%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월드컵에서 본선 경쟁이 가능한 선수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공격에는 김신수(울산)와 이근호(상주)가 주전 경쟁을 벌이고 있고, 손흥민(레버쿠젠), 이청용(볼

턴), 기성용(선덜랜드), 김보경(카디프시티), 김영권(광저우), 홍정호(아우크스부르크) 등 해외파 위주로 주전이 어느 정도 정해진 자리를 제외하면 나머지 포지션에서 누가 홍 감독의 선택을 받을지 이번 평가전의 관전 포인트가 되는 셈이다.

특히 골키퍼와 좌우 풀백, 수비형 미드필더 등에서 이번 평가전 선수 기용이 어떻게 될지에 팬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고품격 맞춤 웨딩전문 호텔 무등파크

국립공원 무등산을 품에 안은 休·安·林의 궁전호텔 무등파크가 여러분을 VIP로 초대합니다.

신년웨딩 큰잔치 2014년 2~3월 중

웨딩 큰잔치 메뉴 (200명 이상)

뷔페 28,000 (부타(부가세 별도) 스테이크 33,000 (부타(부가세 별도)

무료제공 특전 : 객식 2실, 꽃길, 페백식, 음료, 주류



호텔무등파크

문의 062)226-0011

예약실 062)221-2700